

오르페우스교와 플라톤 사상으로 살펴본 나그함마디 문서의 영혼의 여행¹⁾

조재형*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나그함마디 문서의 ‘영혼’과 ‘영혼의 여행’을 오르페우스교와 플라톤 사상의 관점에서 사상사 비평법(History of Ideas)²⁾과 종교사적 비교 연구로 살펴보는 것이다.³⁾ 특히, 사상사 비평법은 인류 역사의 긴 시간 속에

* 케이씨(그리스도) 대학교 강사, 신약학

1)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5504).

이 논문은 또한 ‘2021년 한국신약학회 정기 총회 및 정기학술대회’(2021년 5월 1일)에서 “나그함마디 문서의 영혼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을 수정 보완하였다.

2) Arthur O. Lovejoy,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repr., 1948), 1-23; 사상사 비평법은 “문화 이론”을 추적하여 “의미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Mark Bevir, *The Logic of the History of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지속해서 러브조이의 책에 대한 인용과 분석, 비평을 통해서 그의 이론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성서학 분야에서는 라일리(Gregory J. Riley)의 대표적인 저서들이 이 방법론을 사용했으며, 사상사 비평법을 문학적으로 적용한 미메시스 비평은 테니스 맥도날드의 신약성서 연구에 사용되었다. 러브조이가 사상의 역사는 종교, 철학, 정치, 문학에서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듯이, 고대 문학작품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로마에 나타나는 영혼의 여행을 문학비평을 이용하면 사상의 역사를 더욱 잘 추적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서울: 동연, 2020), 61-62를 참조하라.

3) 영지주의와 고대 영지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필자는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을 중요하게

서 ‘영혼’에 대한 사상(idea)이 어떻게 각 영역에서 표현되고, 보존되고, 변화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나그함마디 문서를 산출했던 영지주의 공동체에 끼친 영향을 추적한다.⁴⁾ 리브조이(Arthur Lovejoy)는 철학, 과학, 문학, 예술, 종교, 정치를 사상사의 중요한 영역으로 본다. 이 중에서 이 논문은 종교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영혼의 기원과 영혼의 여행을 구체적인 나그함마디 문서의 본문에서 찾아갈 것이다.⁵⁾ 왜냐하면 신약성서와 비교해서 훨씬 많은 나그함마디 문서의 본문들이 영혼과 영혼의 여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영혼의 여행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벗어난 영혼이 현재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이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보지만, 사상사적 측면에서 이것들은 그리스 문명 이전의 미케네 문명과 크레타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고대 유대교는 헬레니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주장도 차후에 함께 연구할 과제이다.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터·무나·신구약 중간사와 기독교의 기원 탐구』(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22-38.

- 4)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영혼의 영혼’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관심은 마이클 뉴턴의 책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는 뉴에이지 시각에서 영혼들의 여행을 하나의 최면 상담사례를 모아서 분석하여 기술하였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의 분석은 심리상담 사례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소설의 형식으로 플라톤과 신비주의 종교, 베다 사상 등에서 이야기한 영혼과 영혼의 여행을 기술한 것처럼 보인다. Michael Newton, 『영혼들의 여행』, 김도희·김지원 역(서울: 나무생각, 2018).
- 5) ‘큰 역사’ 접근법(Big History)의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인간의 능력은 영혼의 존재를 인간이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유발 하라리는 보이지 않는 것의 한 축으로서의 종교를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주장한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독립성을 발전적으로 해석하였다. 하라리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지배적인 종이 되었는가를 조사한다. 그에 의하면, 유연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능력 때문에 지구상의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화폐, 제국, 종교이다. 특히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원시인들은 유령과 정령을 믿었고, 나중에는 영혼에 대한 존재를 믿어서 사회적 협력과 질서를 강화한다. 이 관점을 사용한 화폐와 제국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종교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는 적다. Yuval Noah Harari, 『사피엔스』, 조현욱 역(서울: 김영사, 2016), 48-54; 큰 역사 접근법에 대해서는 David Christian, *Maps of Time: An Introduction to Big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를 참고하라.

포함한다.⁶⁾ 지면의 제약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지만, 사실 ‘영혼의 여행’(또는 영혼 여행)이라는 개념은 많은 종교에서 나타난다.⁷⁾ 또한 몇몇 신약성서 구절들을 제외하고는 이 논문에서는 신약성서에서의 영혼의 여행은 거의 다루지 않을 것이다.⁸⁾

필자는 먼저 영혼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를 다룬 후, 그리스 신비종교인 오르페우스교와 철학적인 종교를 집대성한 플라톤 사상으로 영혼을 살펴보고 한다. 전 세계 대다수의 성서학자는 주로 유대교와 구약의 배경에서 신약성서를 연구하기에, 그리스 종교와 철학이 신약성서에 끼친 영향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⁹⁾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나그함마디 문서 연구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많은 영지주의 연구자들은 유대교 배경보다는 헬레니즘 배경에서 영지주의를 고찰한다. 정통 그리스도교가 플라톤 사상을 보수적으로 수용했다면, 영지주의 그리스도교는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플라톤 사상이 나그함마디 문서에 끼친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준다.¹⁰⁾

6) Ismo Dunderberg, “Moral Progress in Early Christian Stories of the Soul,” *New Testament Studies* 59:2 (2013), 247-48.

7) 기독교의 교리를 모방한 통일교조차도 죽음을 영혼이 본향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며, 죽은 자의 영혼이 영계(사후세계)로 가는 영혼의 여행을 말한다. 이 영혼 여행은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을 받아들여 한국의 무속종교와 결합하여 조잡한 형태로 주조한 것이다. 양편승, “한국신종교의 생사관과 의례 ; 통일교의 생사관과 죽음의례,” 『신종교연구』 23 (2010), 94-100을 참조하라.

8) 신약성서에 나타난 ‘영혼의 여행’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조재형,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 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 *Canon&Culture* 15:1 (2021), 219-47; 조재형, “알몸으로 빠져나간 청년과 영혼의 여행 (막 14:51-52),” 『신학사상』 172 (2016), 7-39.

9) 그리스로마 배경에서의 신약성서 연구는 필자의 다음 책을 참조하라. 조재형, 『그리스로마 종교와 신약성서: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개정증보판 (서울: 감은사, 2021), 특히 30-32의 연구사 부분.

10)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359; 플라톤 사상이 영지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ohn D. Turner, “Sethian Gnostic Adaptations of Plato’s Timaeus,” *ARC* 33 (2005), 52-73; Lautaro Roig Lanzillotta, “A Way of Salvation: Becoming Like God in Nag Hammadi,” *Numen*

2. 간략한 연구사¹¹⁾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의 영혼에 관한 연구는 영혼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고 논증하는 데에 치중해왔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영혼에 관한 연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성서 본문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주류를 이뤄왔다.¹²⁾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제외하고 근대에 들어와서 영혼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종합적인 연구는 어윈 로테(Erwin Rohde)의 『영혼-그리스인들 안에 있는 영혼제외와 불멸의 믿음』이다.¹³⁾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영혼제외의 기원과 불멸사상의 출현에 관한 깊고 상세한 기술을 하며, 영혼과 불멸사상의 관계도 잘 논한다.¹⁴⁾ 로테는 기원전 7-5세기 이전부터 영혼제외가 그리스 종교에서 매우 중요했으며,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작품에 무수하게 이 제외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이 영혼제외는 영혼불멸과 영혼의 미래 삶에 관한 뿌리를 제공한다.¹⁵⁾ 더욱 구체적인 영혼불멸 사상은 디오니소스 제외와 오르페우스교를 거치면서 확고해진다. 소크라테스도 오

60:1 (2013), 71-102; Birger A. Pearson, "Gnosticism as Platon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Marsanes (NHC 10,1)," *Harvard Theological Review* 77:1 (1984), 55-72; Roelof van den Broek, "The Authentikos Logos: A New Document of Christian Platonism," *Vigiliae Christianae* 33:3 (1979), 260-86; Stephen J. Patterson, "Jesus Meets Plato: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Thomas and Middle Platonism*," in *Thomasevangelium: Entstehung, Rezeption, Theologi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8), 181-205.

- 11) 이 연구사 부분은 2020년 10월 30일 신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했던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조재형, "그리스 종교와 철학으로 살펴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 (대전: 한국신약학회 제111차 정기학술대회, 2020.10.30.), 133-35.
- 12)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종현의 글을 참조하라. 성종현, "인간의 본질과 죽음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장신논단』 44:1 (2012), 63-69.
- 13) Erwin Rohde, *Psyche: the Cult of Souls and Belief in Immortality Among the Greeks*, W. B. Hillis, trans. (London: Kegan Paul, 1925).
- 14) Rohde, *Psyche*, xiv-xv.
- 15) Rohde, *Psyche*, 120-21, 72.

르페우스교의 영향을 받았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에다 오르페우스교의 전통을 보다 체계화해서 그의 영혼론을 확립하게 된다.¹⁶⁾

로테는 영혼불멸 사상의 흐름이 그리스에서 동방으로 흘렀다고 보았지만, 종교사학과 학자들은 초기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그리스 종교의 영혼불멸 사상이 어느 정도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나그함마디 문서가 1945년에 발견되면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¹⁷⁾ 영혼불멸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의 영혼불멸 사상은 확고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교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쿨만(Oscar Cullmann)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하여, 그리스도교에서는 영혼불멸보다는 몸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영혼불멸을 믿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의 예수는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막 14:36-48). 쿨만에 의하면, 신약성서는 영과 몸을 이원론으로 보지 않고 통전적으로 보아 몸의 부활을 강조한다는 것이다.¹⁸⁾ 그는 영혼을 유대교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리스의 영혼불멸 사상이 신약성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영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마가복음과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예수의 죽음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18:1-19:42)과 누가복음(23:26-49)에서 예수가 소크라테스처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¹⁹⁾

쿨만과는 대조적으로, 그레고리 라일리(Gregory J. Riley)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철학자들과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을 섞어서 새로운 이원론을

16) Rohde, *Psyche*, 463-64.

17) David M. Reis, "The Journey of the Soul: Its Expressions in Early Christianity,"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1999), 41-43.

18) Oscar Cullmann, "靈魂不滅인가 죽은자의 復活인가," 『靈魂不滅과 죽은자의 復活』, 전경련 편역(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9), 19-26.

19) Raymond R. Brown, "The Passion According to John: Chapters 18 and 19," *Worship* 49:3 (1975), 127;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302-8.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예수의 이원론 사상은 오르페우스교와 그리스 철학자들(특히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사상과 비슷했지만,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리스 철학자들과는 달리 믿었고, 조로아스터교 사상가와와는 달리 그리스 과학에 기초하여 영혼과 육체를 이해했다는 것이다.²⁰⁾ 그는 신약성서와 예수의 가르침에서 영혼불멸과 영육 이원론이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혼의 여행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은 많이 제시하지 않았으나, 역사, 신학, 과학, 사회학의 연구 결과로 영육 이원론에 대한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²¹⁾ 라일리보다는 범위를 좁혀서 보봉(F. Bovon)은 나그함마디 문서를 비롯한 영지주의 문서들(『부활에 관한 논고』, 『영혼에 대한 해석』, 『마리아 복음서』 등)에 영혼의 상승(여행)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한다. 그런데도 그는 플라톤의 영혼불멸을 넘어서는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라는 예수의 말에 주목하여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 안에 계속 남아있다고 본다. 그는 영혼의 상승이나 여행보다는 ‘영혼의 돌아옴’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영혼과 영혼의 불멸성을 부활 자체 안에서 신앙과 관련해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²²⁾ 최근에 이스모 둔더버그(Ismo Dunderberg)는 영혼의 위와 아래로의 움직임을 플라톤 사상에서 먼저 살펴본 후, 도덕의 발달(moral progress)이라는 관점에서 나그함마디 문서의 몇몇 본문에 나오는 영혼의 하강과 상승을 다룬다.²³⁾ 그는 ‘영혼의 여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여 감정을 영혼을

20) Gregory J. Riley, *The River of God: A New History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HarperCollins, 2001), 140-62.

21) 라일리의 영육 이원론에 관한 설명 속에는 이미 ‘영혼의 여행’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의 연구 내용과 방법론은 본 연구자의 연구에 통찰력을 준다.

22) F. Bovon, “The Soul’s Comeback: Immortality and Resurrection in Early Christianity,” *Harvard Theological Review* 103:4 (2010), 396-406.

23) 『권위 있는 가르침』, 『영혼에 관한 주석』, 『요한 비밀서』, 『세상이 기원』, 『아르콘들의 실체』 등. Ismo, “Moral Progress in Early Christian Stories of the Soul,” 250-65.

속이는 가장 악한 것으로, 영혼의 치유와 신적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덕의 진보(moral improvement)로 해석한다.²⁴⁾ 올라 테바하우타(Ulla Tervahauta)는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영혼의 하강과 상승을 설명한다. 그는 나그함마디 문서의 영지주의를 보다 넓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집트 배경 안에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플라톤 사상의 영향력을 강조하여, 『권위 있는 가르침』의 핵심 주제를 ‘영혼의 여행’으로 해석한다.²⁵⁾

국내 학자 중에서 박승찬은 영혼의 윤리적 역할에 주목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종교적 관점보다는 윤리적 관점에서 영혼을 해석했다고 주장하여, 보봉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 속에서 영혼불멸과 부활을 연결한 것과 비슷한 관점을 제시한다.²⁶⁾ 국내 학계에서는 철학 분야에서 영혼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그리스도교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영혼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²⁷⁾ 성종현은 헬라의 영육이원론을 거부하면서 죽음 이후 영혼 존재의 증거들을 유대묵시문학과 구약성서에 둬으로써 신약성서의 영혼에 대한 논의를 협소화한다.²⁸⁾ 반면에 박경미는 나그함마디 문서를 중심으로 영지주의의 영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²⁹⁾ 차정식은 『신약성

24) Ismo, “Moral Progress in Early Christian Stories of the Soul,” 252-53.

25) Ulla Tervahauta, *A Story of the Soul's Journey in the Nag Hammadi Library: A Study of Authentikos Logos (NHC vi, 3)*, Novum Testamentum Et Orbis Antiquus 10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10-14.

26) 박승찬, “생명의 원리에서 인격의 중심어로,”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7 (2011), 83-114.

27) 전명수, “‘마음·몸·영혼’과 사회에 대한 뉴에이지적 접근,”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0 (2011), 103-36; 강성훈, “플라톤의 『국가』에서 선분 비유와 동굴 비유,” 「철학사상」 27 (2008), 165-200; 이동규, “고대 이집트인의 사후 세계와 영혼 이해,” 「중앙사론」 31 (2010), 197-227; 배국원, “‘영혼’에 관한 최근의 철학적 논의들,” 「복음과 실천」 47:1 (2011), 55-80; 장영란, “헬레니즘철학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혼 훈련 개념,” 「현대유럽철학연구」 29 (2012), 123-54.

28) 성종현, “인간의 본질과 죽음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 59-86.

29) 박경미, “사로잡힌 영혼과 신의 과오-영지주의 우주론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27 (2003), 87-116.

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에서 영혼과 영혼의 여행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비록 그는 환생에 초점을 맞추지만, 환생의 주체가 되는 영혼을 ‘영혼의 여행’ 및 ‘영혼의 이주’와 연관시킨다. 그는 역사비평, 종교사비평 방법, 그리고 사회사 및 문화사적 분석을 사용하여 원시종교부터 고대 근동종교와 고대 서양종교뿐만 아니라 동양종교에서 환생사상을 찾는다. 동양종교를 제외하고 환생에 관한 연구는 영혼불멸 사상의 연장선에서 그것의 주체는 영혼이 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필자의 주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³⁰⁾

3. 오르페우스교와 플라톤의 영혼

전설적인 시인 오르페우스는 오르페우스교의 창시자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디오니소스 제의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다.³¹⁾ 사실 디오니소스 제의는 아폴로 제의만큼 오래되었다. 다른 그리스 신비종교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디오니소스 제의는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박카이』(*Bacchae*)뿐만 아니라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작품에도 등장한다.³²⁾ 오르페우스교(오피즘)가 다른 밀의종교보다 난해한 점은 오피즘이 인류 발생론적인 디오니소스 신화, 또는 불멸과 영혼의 윤회와 관련된 사상에 기초한 통합된 영적 운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³³⁾

디오니소스는 다른 두 개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나는 제우스가

30)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서울: 한들출판사, 2007), 9-71.

31) Rohde, *Psyche*, 335.

32)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부천: 부크크, 2018), 139-40.

33) Walter Burkert, *Greek Religion*, trans., John Raff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297.

세멜레의 배 안에 있던 배아 상태인 디오니소스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서 태어나게 하는 이야기이다.³⁴⁾ 또 다른 이야기는 제우스의 원수인 타이탄이 헤라의 사주를 받아 아기 디오니소스를 죽이는 것이다. 타이탄은 그 아기에게 접근해서 거울을 가지고 속인다. 아기 디오니소스가 거울을 보고 있을 때 타이탄은 그를 공격한다. 아기 디오니소스는 도망하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을 하다가 마침내 황소로 변신한다. 그때 타이탄은 도망기는 그를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먹는다. 오직 그의 심장만이 아테네 여신에 의해서 구출되어 제우스에게 넘겨진다. 제우스는 그것을 삼켜서 디오니소스를 디오니소스-자그레우스(Zagreus)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다.³⁵⁾ 이와 관련된 다른 전승에서 제우스는 이 타이탄을 번개로 태워 죽인 후 그 숲덩이에서 디오니소스의 잔해를 모아서 그를 다시 살린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두 번이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는 명칭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르페우스교와 연결된다.³⁶⁾ 오르페우스가 디오니소스 제의를 창안했다는 것은 그가 기존의 디오니소스 제의를 새롭게 바꾸었다는 것이다.³⁷⁾ 무엇보다 오르페우스교는 디오니소스 제의에 모호하게 남아있는 영혼불멸 사상을 분명히 드러내고,³⁸⁾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육체와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³⁹⁾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바람처럼 떠다니다가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하게 되고, 이 “탄생의 바퀴”는 희망 없는

34) Mircea Eliade, 『세계종교사상사 1: 석기시대에서부터 엘레우시스의 비의까지』, 이용주 역(서울: 이학사, 2014), 543; Hesiodos, 『신들의 계보』,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89.

35) Rohde, *Psyche*, 340-41.

36) Burkert, *Greek Religion*, 297, 300.

37) 장영란,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학파의 영혼윤회설,” 『철학과 현상학』 26 (2005), 138; 비슷한 맥락에서 차정식은 “피타고라스 종교가 오르페우스 종교의 개혁 차원에서 생성되었다면, 오르페우스 종교는 바쿠스 종교의 갱신이란 차원에서 발전했다.”라고 분석한다.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53.

38) Mircea Eliade, 『세계종교사상사 2: 고타마 붓다에서부터 기독교의 승리까지』, 최종성·김재현 역(서울: 이학사, 2014), 256.

39) 장영란,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학파의 영혼윤회설,” 138.

반복 안에서 되풀이 된다.⁴⁰⁾ 이 윤회를 멈추고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교는 금욕적인 실천과 정결제의를 중요하게 여긴다.⁴¹⁾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원반 형태의 평평한 것이 아니라 공처럼 둥글다는 사실은 제기하여 지구와 우주의 크기가 삼층 세계의 우주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⁴²⁾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신은 결코 물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영혼도 영적인 천상의 기원을 가진다고 믿어졌다.⁴³⁾ 그리스 철학에서 영혼에 관한 사상은 오르페우스교의 사상을 받아들인 피타고라스를 거쳐 마침내 플라톤에게서 체계화된다.⁴⁴⁾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몸은 영혼의 무덤이 되고(*Gorgias* 493.a), 신성을 닮은 영혼은 불멸하여 죽음은 오로지 파멸하는 몸에만 영향을 미친다. 종말에 영혼은 선한 모나드로 불리는 절대선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Phaedo* 80.a-c).⁴⁵⁾ 악한 영혼은 그들의 행위에 따른 벌과 인간보다 낮은 종류의 육체에 감금되는 환생을 하게 되고, 정의로운 영혼은 전생의 삶에 합당한 환생의 상을 받게 된다(*Republic* X 614.c-621.d).⁴⁶⁾ 그에 의하면 영혼은 윤회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곳에서 존재의 지식(덕의 지식)을 배우게 된다(*Meno* 81c-d). 궁극적으로 영혼은 모나드의 한 부분임을 상기하고 기억함으로써 영혼의 정화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존재의 지식을 얻음으로써 윤회의 사슬을 끊고 이데아의 세계에 계속 남을 수 있다. 라일리는 “천상의 영원한 영혼은 지상의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 분리되어

40) Rohde, *Psyche*, 342.

41) E. R. Dodds, *The Greeks and the Irrational* (Boston: Beacon, 1957), 154.

42) Frank N. Magill, ed., *Dictionary of World Biography: The Ancient World*, Vol. 1 (Chicago: Fitzroy Dearborn, 1998), 729.

43)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서울: 동연, 2020), 204.

44) Riley, *The River of God*, 147; Eliade, 『세계종교사상사 2』, 276.

45) Plato, “Phaedo,”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ed.,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46) Plato, “Republic,”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ed.,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있고, 영혼은 육신의 몸을 입기 전후에 모두 존재하며, 또 영혼은 사후에 어떤 형태든 심판을 통해 그 장래의 운명·또 다른 환생이든가, 아니면 죄가 씻긴 후 본래의 천상의 집으로 돌아간다·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⁴⁷⁾ 그러므로 플라톤에 있어서 인간의 탄생은 영혼의 하강과 함께 시작되고, 인간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환생을 위한 영혼의 여행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영혼의 윤회를 멈추게 하는 존재의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나그함마디 문서 자체가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플라톤의 영혼 개념 자체도 그리스 밀의종교(특히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그함마디 문서의 영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⁴⁸⁾

4. 나그함마디 문서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나그함마디 문서에서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묘사하는 부분은 신약성서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다.⁴⁹⁾ 영지주의 종교에서 하느님을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64년 전에 한스 요나스(Hans Jonas)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영지주의 종교의 역설의 시작과 끝은 알려지지 않는 하느님 자신이다.... 하느님 자체에 대한 지식은 그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지식이다.”⁵⁰⁾ 나그함마디 문서를 산출한 영지주

47) Gregory J. Riley, 『하느님의 강-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류를 찾아서』, 박원일 역, 21세기 기독교 총서, 김준우 편(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219.

48)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206-7.

49)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느님의 형상’(ὅς ἐστιν εἰκὼν τοῦ θεοῦ τοῦ ἀοράτου, πρωτότοκος πάσης κτίσεως)이라는 골로새서 1장 9구절의 표현에서 등장하며,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τὰ γὰρ ἀόρατα αὐτοῦ)라는 표현에서 간접적으로만 나타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강조도 다음의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고후 4:8).

50) Hans Jonas, *The Gnostic Religion: the Message of the Alien God & the Beginnings*

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 공동체와 신학을 만들어 갔다. 이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삼위 일체에 대한 독립적인 강조보다는 신과 예수와 성령과 인간이 하나라는 일원론 사상이 지배적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예수와 인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이 바로 ‘영’(프뉴마)이고 예수와 인간들이 그 영의 속성을 함께 받았다고 본다. 나그함마디 문서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언급은 50여 번 나온다.⁵¹⁾ 콥트어로는 ‘아호라톤’(a6oraton), 헬라어로는 ‘아르레톤’(ἀρρήτον)은 일관되게 하느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존재’인 모나드로 나타내는 중요한 낱말이다.

예를 들면, “완전함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로부터 무엇인가가 존재하게 되며, 모든 공간이 그로부터 나온다”(NHC I, 3, 20.19-24).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NHC I, 3, 38.8-13). 그는 얼굴이나 형체가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게도 보일 수 없으며(NHC I, 5, 54.29-34),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NHC I, 5, 56.27-30). 여기에서 하느님은 분명하게 모나드로 묘사된다. 즉, “그 모나드(Monad)는 그 위에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 주권자이고, 하느님으로 모든 것의 아버지이자 모든 자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NHC II, 1, 2.26-32).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과 ‘순결한 영’(NHC II, 1, 5.29-7.30)과 ‘위대한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의 아버지’(NHC III, 2, 40.12-45.10), 그리고 ‘세 배나 강력하고 완전한 보이지 않는 영’(NHC VIII, 1, 1-132)으로 종종 묘사된다.

of Christianity, 3rd. edition (Boston: Beacon Press, 2001), 288.

51) 제임스 로빈슨이 번역한 영어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James M. Robinson, ed., *The Nag Hammadi Library* (New York: HarperCollins, 1990), 41, 49, 54, 62, 63, 64, 66, 67, 86, 88, 90, 92, 97, 106, 107, 108, 109, 110, 112, 113, 167, 174, 209, 210, 211, 212, 214, 216, 217, 218, 219, 222, 226, 242, 274, 324, 376, 377, 393, 399, 408, 409, 410, 419, 421, 422, 423, 424, 427, 428, 447, 463, 465, 492, 493, 494, 496, 499, 513, 514, 515, 517, 518, 519.

보이지 않는 모나드로부터 인간의 영혼도 방출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되고(NHC VI, 3, 22.6-15; 32.25-28), 당연히 예수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방출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되고(NHC VII, 4, 113.9-11), 예수 주위에 있는 천사들도 ‘보이지 않는 천사들’ (NHC VII, 3, 82.14)이 된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존재의 첫 번째 생각인 ‘프로텐노이아’(Protennoia)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NHC VIII, 1, 35.1-13). 그래서 나그함마디 문서에 반영된 영지주의 공동체들은 보이지 않는 모나드로서의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전과 교회를 거부하고 인간존재의 본질인 영혼이 원래의 모나드로 돌아간다는 ‘영혼의 여행’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영적인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오르페우스교와 플라톤 사상과 모나드의 개념을 근거로 다음 장에서는 나그함마디 문서의 주요 본문들에 나오는 영혼의 하강과 상승의 은유(metaphor)들이 어떻게 영혼의 여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5. 나그함마디 문서에 나타난 영혼의 여행

5.1. 『요한 비밀서』

『요한 비밀서』는 셋과 영지주의 신화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나그함마디 문서에서 가장 의의 있는 영지주의 신화와 신학을 보여주는 문서이므로, 다른 영지주의 문서들을 이해할 때 먼저 살펴봐야 한다. 먼저 『요한 비밀서』는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절대신(God)으로서의 모나드(monas)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⁵²⁾ 이 모나드는 “홀로 다스리시며 그분 위에 아무것도

52) 한글 번역은 송혜경의 번역을 주로 사용하였고, 쪽과 줄수의 구분은 벤틀리 레이튼의 책을 참조하였다. 송혜경, 『영지주의자들의 성서』(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14),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하느님,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그분은 불멸하시며....그분은 완전 자체가 이시다....그 분은 자신의 빛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신다”(2,26-4,1). 모나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에온, 생명, 행복, 지식, 선, 자비와 구원, 은총을 부여한다(4,4-8). 이 모나드로부터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인간의 영혼이 방출되어 나온다.⁵³⁾ 즉, 모나드로부터 신적 어머니인 바르벨로가 나오는데, 그녀는 만물에 앞서 생겨난 “만물의 태(자궁)”로서, 모나드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출현한 첫째 힘”이자 “첫 번째 생각”이다(4,29-5,5).⁵⁴⁾ 그녀를 통하여 생각, 예지, 불멸성, 영원한 생명, 진리라는 “남녀 양성의 오에온조, 곧 열 에온”이 나온다(5,10-8). 여기에서 “열 개의 에온은 각각 하나의 실체이면서 아버지 하느님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⁵⁵⁾ 그리고 모나드가 바르벨로를 바라보자 바르벨로는 독생자를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낳는다. “모나드의 ‘응시’는 모나드로부터 바르벨로와 그리스도의 유출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이다.”⁵⁶⁾ 독생자 그리스도는 모나드에게 그의 동료 에온들을 달라고 요청하자, 모나드는 다시 바르벨로를 응시하여 정신, 의지, 말씀을 나오게 하여, 바르벨로와 함께 자신의 아들 ‘스스로 생겨난 이’(오토게네스), 즉, 그리스도를 완성한다(7,18-22). 이 그리스도로부터 네 빛들(아르모젤, 오리아엘, 다우에이타이, 엘레레트)과 천상의 인간들(아다마스, 셋, 셋의 후손과 거룩한 영혼들)이 방출된다(8,4-9,22). 비로소 모나드와 바르벨로와 열 에온, 그리스도(오토게네스)와 그 동료들(정신, 의지, 말씀), 그리스도의 네 빛, 네 빛 곁의 열 두 에온, 네 빛 앞의 천상의 인간들이 천상의 플레로마(충만)를 형성한다.⁵⁷⁾

472-602; Layton, *The Gnostic Scriptures*, 28-51.

53) 사실 이 모나드에 대한 개념은 플라톤이 이미 『파르메니데스』에서 설명하였다(140. a-b).

54) 모나드의 ‘첫 생각’은 신적인 존재 ‘프로노이아’(Pronoia)라고도 한다. Reis, “The Journey of the Soul,” 298.

55) 송혜경, 『영지주의자들의 성서』, 445.

56)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94.

플라톤의 물질세계의 창조를 모방한 『요한 비밀서』에 의하면, 물질세계는 에온 중에 가장 밑에 있던 소피아의 욕망에 의해서 창조되었다.⁵⁸⁾ 소피아는 모나드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알다바오뜨를 낳은 후, 플레로마의 바깥으로 버리고 눈부신 구름으로 감싸 놓는다(9.25-10.19). 알다바오뜨는 비록 소피아의 욕망의 결과로 태어나서 플레로마의 밖에 있었지만 소피아로부터 전해 받은 모나드의 파편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일곱 하늘 위에 일곱 임금(권세)을 만들어 세워 두고, 또 다섯 임금을 깊은 심연 위에 둔다. 이들에게는 소피아까지 내려왔던 모나드의 힘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심연은 알다바오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10.19-11.18). 그 결과로 소피아는 모나드로부터 오는 섬광의 결핍을 감지하게 된다. 이것이 자기가 유기한 알다바오뜨가 저지른 악 때문임을 알게 되자 수치와 후회하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동시에 소피아는 자신이 있던 에온에서 그 다음 단계로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다. 이 기도를 플레로마의 에온들이 듣고 모나드에게 탄원을 하자 모나드는 이 결핍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피아를 원래의 에온으로 옮기는 대신 알다바오뜨 바로 위에 있는 아홉째 하늘에 머물게 한다(13.13-14.12).⁵⁹⁾ 여기까지가 하늘과 심연을 비롯한 물질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한 것이다. 이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영혼의 여행이 인간 구원 사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한 목소리가 드높은 에온-하늘에서 울려 나왔다. ‘사람은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도 (존재한다).’ 그때 우두머리 아르콘, 알다바오트는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그 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하였다.” 즉,

57) 송혜경, 『영지주의자들의 성서』, 447.

58) “플라톤은 모나드의 개념을 통해서 영적인 플레로마의 세계에서부터 영적인 인간의 창조까지 설명하고, 물질적인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는 데미우르고스라는 물질의 신이 만드는 것으로 설명한다. 데미우르고스는 모나드가 가진 모상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지만, 그 모상을 잘못 해석해서 불완전한 세계를 만든다(*Timaeus* 28.a).”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95.

59)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96.

알다바오뜨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모나드의 목소리를 소피아가 낸 목소리로 착각하여 물에 비친 거룩한 영의 모상인 ‘첫 인간’의 형상을 사람을 만든다.⁶⁰⁾ 알다바오뜨의 에온들과 천사들(다이몬)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혼적 육체를 가진 아담을 완성했지만 그는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알다바오뜨가 소피아로부터 유출되어 자신에게까지 남아있는 힘을 불어넣자, 아담은 그제야 움직이게 된다(14.13-18.28). 모나드의 불꽃으로 생명을 가지게 된 아담이 알다바오뜨와 그의 부하들(에온들과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자, 그들은 아담을 모든 물질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져 버린다(19.32-20.8).⁶¹⁾ 모나드는 아담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에서 나온(또는 프로노이아에서 나온) 찬란한 빛의 에피노이아(또는 조예)를 보낸다. 에피노이아는 모나드의 씨앗이 아담에게 있으며 그의 영이 모나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시 플레로마로 올라오는 길을 가르친다(20.9-27).⁶²⁾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알다바오뜨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프로노이아가 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플레로마(모나드)로 되돌아가면서 “육체의 감옥에 갇힌 영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⁶³⁾

나는 순결한 빛의 프로노이아다. 나는 동정이신 영의 ‘생각’이며 너를 영예로운 그곳으로 데려가는 자다. 일어나라! 그리고 들은 자가 바로 너임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너의 뿌리를 따라가라! 그것은 바로 나, ‘자비로운 이’다. 그리고 빈곤의 천사들과 혼란의 다이몬들과 너를 유혹하는 모든 자에게서 너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깊은 잠과 저승 울타리를 조심하여라(31.12-21).

60) 송혜경, 『영지주의자들의 성서』, 451-52.

61) 소피아가 사자의 얼굴을 한 추한 알다바오뜨를 버렸다면, 알다바오뜨는 자기보다 슬기롭고 월등한 아담을 버린다. 소피아의 아기 유기가 두려움에 근거를 둔다면, 알다바오뜨의 유기는 질투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알다바오뜨는 자랑스럽게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한다.

62) 『요한 비밀서』에서 묘사하는 인간 영혼의 구원과 해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필자의 책을 참조하라.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96-101.

63) 송혜경, 『영지주의자들의 성서』, 466.

『요한 비밀서』는 플라톤과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을 받아들여, 비록 인간이 알다바오뜨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영혼이 모나드로부터 방출되어 다시 모나드가 거하는 플레로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영혼의 하강과 타락을 설명한 후, 이 영혼이 무지에서 깨어나서 망각을 버리고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여, 다시 원래 모나드가 만든 플레로마로 돌아가야 하는 영혼의 여행을 제시한다.

5.2.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나그함마디 전체 13개의 코덱스 중 첫 번째에 속하고,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서 분량은 짧지만 영지주의 연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마치 창세기가 구약의 첫 책으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책으로서 신학적 의미가 있듯이, 나그함마디 문서의 첫 번째로 나오는 문서는 가볍게 볼 수 없다.⁶⁴⁾ 왜냐하면, 영지주의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플레로마,’ ‘마음,’ ‘진리,’ ‘선재,’ ‘안식’ 등과 같은 “나그 함마디 코덱스 1권의 다른 문서들에서 발전되어 나타나는 비밀적이고 기술적인 영지주의적 용어들을 현저하게 많이 보유하고”⁶⁵⁾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은 “나는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한다. 매우 간결한 이 기도문은 하느님 중심의 신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인간의 운명을 묘사하고, 반영지주의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적 지체의 담지자로서의 바울을 묘사하고 있다.⁶⁶⁾ 이 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영혼의 여행이 언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으로 지칭되는 절대자는

64) 조재형, “그레코-로만 배경에서 영지주의 연구(13)－〈사도 바울의 기도〉,” 『성서마당』 136 (2020), 94.

65) Louis Painchaud and Michael Kaler, “From the Prayer of the Apostle Paul to the Three Steles of Seth: Codices I, Xi, and Vii from Nag Hammadi Viewed as a Collection,” *Vigiliae Christianae* 61:4 (2007), 457.

66) 조재형, “그레코-로만 배경에서 영지주의 연구(13)－〈사도 바울의 기도〉,” 102.

“충만”(paplhrwmas)과 “안식”(taanapausis)이기 때문에 기도자 자신이 하느님(모나드)으로부터 방출되어 다시 그 분에게 돌아가는(받으소서) 영혼의 여행을 전제한다.⁶⁷⁾

5.3. 『도마복음』과 『도마행전』

『도마복음』은 명시적으로 영혼의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위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제외하면 이 논문에서 다루는 다른 문서들에 비해서 영혼 자체에 대한 언급도 적다. 도마 영지주의에서 예수가 전달한 비밀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예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게 될 때 너희는 알려질 것이다(『도마복음』 3.2). 그리고 너희가 살아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⁶⁸⁾ 여기에서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이 “살아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적인 기원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아버지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⁶⁹⁾ 예수는 제자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된 사람들이며, 빛에서 나온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한다(51.1-2). 이는 아버지, 예수(빛), 선택된 자들(빛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영적인 연결을 통해서 모나드로부터 방출된 신적인 섬광이 예수를 거쳐 제자들에게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이신 분”이며 “나누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나는 내 아버지[모나드]의 것들을 받았다”라고 말한다(61. 2-3). 즉 예수 자체도 바로 이 모나드로부터 나온 모나드의 파편을 받았기에 “나는 그(것)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 내게서 나왔고 또 모든 것이 내게로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77.1).

67) Bentley Layton, ed., *The Gnostic Scriptures: Ancient Wisdom for the New Age* (New York: Doubleday, 1987), 303.

68) 한글 도마복음 번역본은 송혜경의 것을 사용한다. 송혜경, 『산약 외경 상권: 복음서』(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09), 304-53.

69) Madeleine Scopello, 『영지주의자들』, 이수민 역(칠곡: 분도, 2005), 78.

그리스로마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승에서도 “모든 것”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⁷⁰⁾ 예수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느님과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서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방출되었음을 암시한다.

『도마복음』에서 영혼(*psyche*)은 4개의 어록에서 인간의 내적인 본질로 간주한다(25; 28; 87; 112). 기본적으로 『도마복음』은 인간의 영혼이 천상에서 훈육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중기 플라톤 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⁷¹⁾ 예수는 “아버지의 나라는 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 그 상인은 현명하였다. 그는 물건을 팔아 진주를 사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76.1)라고 말한다.⁷²⁾ 『도마복음』에서 진주는 인간 자체 또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⁷³⁾ 도마 영지주의에 속하는 『도마행전』에는 그 유명한 ‘진주의 노래가 나온다. 마술사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꾼으로 고발당한 유다 도마가 부른 이 ‘진주의 노래’는 영혼의 여행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진주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잠에서 깨어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성숙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⁷⁴⁾ 이때 영혼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왔다가(성육신) 결국에는 몸을 떠나서 다시 천상으로 돌아간다.⁷⁵⁾ 선택받은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영혼의 여행을 도마의 예수는

70) 송혜경, 『신약 외경 상권: 복음서』, 163.

71)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131; 플라톤의 『군주론』 10권에 나오는 ‘에르의 신화’(Myth of Er)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이 땅에서 지혜와 덕을 성취한 다음에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 Birger A. Pearson, *Ancient Gnosticism: Traditions and Liter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257.

72) 마태복음 13:45-46에 병행 구절들이 나온다. 『도마복음』의 연대를 2세기로 잡으면 복음서가 『도마복음』에 영향을 준 것이지만, 1세기로 잡으면 오히려 『도마복음』이 보다 원래적인 예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2세기를 선호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1세기, 즉 복음서보다 이른 연대를 제안한다. Marvin Meyer, ed., *The Nag Hammadi Scriptures* (New York: HarperCollins, 2007), 136-37.

73) Pearson, *Ancient Gnosticism*, 257.

74) Pearson, *Ancient Gnosticism*, 260.

75) Layton, *The Gnostic Scriptures*, 366.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복하여라, 혼자인 뽑힌 이들! 너희는 하늘 나라를 찾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왔으니 다시 거기서 돌아갈 것이다.”(『도마복음』 49)라고 기록한다. 예수는 선재하는 영혼으로 묘사되며(28.1), 그의 영혼은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밝힌다(12.1; 38; 104). 또한 ‘혼자’(16; 49; 75), ‘하나’(22; 106), ‘오직 하나’(4; 22; 23)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들은 영혼의 여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⁷⁶⁾

5.4. 『영혼에 관한 주석』

『영혼에 관한 주석』은 3세기 초반에 익명의 저자에 의해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현재는 10쪽의 콥트어 번역판으로만 남아있다. 이것은 영혼의 추락과 회복을 묘사하는 영지주의 신화를 다룬다.⁷⁷⁾ 『영혼에 관한 주석』에서 영혼은 자궁까지 가진 여성으로 나오지만, 원래는 하늘의 아버지 집에서 처녀였고, 형태로는 자웅동체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육체 속으로 추락하여, 그녀는 더러워진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과 자신의 처녀성을 잃어버리고, 창녀가 되어 이 육적인 세상의 여러 남자에게 능욕당한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그녀는 회개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다.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듣고, 그녀가 이전의 순결한 상태로 돌아가 자기의 오빠와 영적인 결혼(자웅동체의 합일)을 하게 만든다. 즉, 신랑이 신방으로 내려오고, 그녀(영혼)와 신랑은 “하나의 생명이 되어“, 서로 나눌 수 없게 된다. 마침내 영혼은 자신을 다시 회복하여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아버지께로 상승하는 여행을 한다(134.6-11).⁷⁸⁾ 여기에서 영혼의 타락과

76) Reis, “The Journey of the Soul,” 266.

77) Madeleine Scopello, “Exegesis on the Soul,” in *The Nag Hammadi Scriptures*, ed., Marvin Meyer (New York: HarperCollins, 2007), 223.

78) Scopello, “Exegesis on the Soul,” 223-24.

치욕에 처함, 회개와 구원을 통해 하늘로 상승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영혼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잘 보여준다.⁷⁹⁾

5.5. 『권위 있는 가르침』

나그함마디 코텍스 VI에 포함된 이 문서는 ‘권위 있는 로고스’(Authentikos Logos)로도 알려져 있는데, ‘영혼의 여행’을 중요한 내용과 주제로 다루고 있다.⁸⁰⁾ 비록 마들렌 스크펠로는 『권위 있는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영혼의 병’(the sickness of the soul)으로 제시하지만, 그 또한 이 문서가 하늘의 기원을 둔 영혼이 이 세상에 떨어졌다가 다시 완벽한 영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35,16-18)라고 지적한다.⁸¹⁾ 이 문서는 여성으로 묘사되는 영혼의 눈에 약혼자인 영(the Spirit)이 안약을 발라주어 그녀가 자신의 참된 기원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22,23-25). 이 땅으로 하강하여 육체 안에 포획된 이 영혼은 인간의 몸 안에서 살면서 다양한 고통과 굴욕을 당하지만, 힘을 되찾아 마침내 원래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간다.⁸²⁾ 영혼이 아버지의 영역으로부터의 추락과 이 땅에서의 순례,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구조는 영혼의 여행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 여행하는 영혼은 남성 또는 여성 영지주의자 모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영혼의 여행은 모든 영지주의자가 무지, 즉 물질적 세상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⁸³⁾

79) Tervahauta, *A Story of the Soul's Journey in the Nag Hammadi Library*, 74.

80) Tervahauta, *A Story of the Soul's Journey in the Nag Hammadi Library*, 14.

81) Meyer, *The Nag Hammadi Scriptures*, 379.

82) Tervahauta, *A Story of the Soul's Journey in the Nag Hammadi Library*, 15.

83) Meyer, *The Nag Hammadi Scriptures*, 382.

5.6. 『이집트인들의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관한 거룩한 책)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에 관한 거룩한 책’이라고 알려진 『이집트인들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에 대해서 기록한다. 이 영은 말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는 아버지이며 빛 중의 빛이며, 충만함의 높은 곳에서 나온 분이며, 빛의 에온들 중의 에온이다(NHC III,2,40.12-41.1).⁸⁴⁾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의 이러한 특징은 앞에 필자가 설명한 모나드의 특징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영은 모나드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이 영은 『요한 비밀서』에서 했던 것처럼 천상의 플레로마를 구성하여 불멸의 종족의 아버지이자 구원자인 셋에까지 영(모나드)의 섬광을 내려준다. 인간 영혼의 구체적인 여행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예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셋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천상의 플레로마임을 암시해줌으로써 ‘영혼의 여행’을 보여준다.

6. 결론

근대에 들어와서 영혼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 학자는 어윈 로테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인의 영혼에 대한 제의와 불멸사상의 출현에 관한 깊고 상세한 기술을 하며, 영혼과 불멸사상의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을 한다.⁸⁵⁾ 로테는 구체적인 영혼불멸 사상이 디오니소스 제의와 오르페우스교를 거치면서 확고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크라테스도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오르페우스교의 전통을 종합해서 영혼론을 확립하게 되었음을 논증한다.

84) Meyer, *The Nag Hammadi Scriptures*, 252.

85) Rohde, *Psyche*, xiv-xv.

로데의 관점은 나그함마디 문서의 영혼과 영혼의 여행을 연구할 때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제공해 준다.

나그함마디 문서에서 모나드(하느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대상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나드의 섬광이 인간에게 도달할 때 비로소 영혼이라는 개념도 함께 생긴다. 영혼 또한 모나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나 이 영혼이 인간이라는 개체 존재와 함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혼은 신(god)보다도 종교사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⁸⁶⁾ 그리스도교에서 영혼 없는 인간 존재를 상상할 수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인간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늘 함께 염두에 두게 된다. 인간의 영혼이 모나드로부터 방출되었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의 고귀성을 증명하는 원천 자료가 되어서 무질서한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완전하고 선한 모나드(하느님)는 인간 영혼을 방출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 심판함으로써 공의를 세운다.

영혼의 구원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영혼의 여행에 대한 담론은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구되었지만, 신약성서의 책들과 거의 동등한 권위로 회람되었던 나그함마디 문서에 관한 연구는 미진했다.⁸⁷⁾ 이런 측면에서, 필자의 이 연구는 나그함마디 문서의 대표적인 문서인 『사도 바울의 기도』, 『요한 비밀서』, 『도마복음』, 『영혼에 관한 주석』, 『권위 있는 가르침』, 『이집트인들의 복음』이 영혼의 여행이 모나드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해석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한, 플라톤의 사상은 나그함마디 문서의 신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것의 밑바탕이 되는 플라톤의 철학적인 종교는 오르페우스교를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의 밀의 종교로부터 그 사상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필자는 새롭게 조명하였다.⁸⁸⁾ 그러므로 나그함마디 문서는 모나드의 선재성과 불멸성을 기반으로 인간

86) 배국원, “‘영혼’에 관한 최근의 철학적 논의들,” 『복음과 실천』 47:1 (2011), 56.

87) 조재형,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 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 227-38.

88)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189-91.

영혼이 모나드로부터 나와서 다시 모나드로 돌아가는 영혼의 여행을 잘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본디 의미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상을 제안한다.⁸⁹⁾

<주요어>

나그함마디 문서, 영혼의 여행, 모나드, 영혼불멸, 오르페우스교, 플라톤 사상

<Keywords>

Nag Hammadi Library, the Journey of the Soul, Monad, Immortality of the Soul, Orphism, Platonism

* 접수일 2022년 1월 31일, 수정일 2022년 3월 24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일

89) 2-4세기 영지주의자들이 선호했던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개념과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예수를 매개로 해서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영혼의 여행에 대한 신약성서와 나그함마디 문서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초기 그리스도의 기원과 신학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훈, “플라톤의 『국가』에서 선분 비유와 동굴 비유,” 『철학사상』 27 (2008), 165-200.
- 박경미, “사로잡힌 영혼과 신의 과오 -영지주의 우주론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 (2003), 87-116.
- _____, “사로잡힌 영혼과 신의 과오 -영지주의 우주론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 (2003), 87-116.
- 박승찬, “생명의 원리에서 인격의 중심으로,”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7 (2011), 59-157.
-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터.무너.신구약 중간사와 기독교의 기원 탐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배국원, “‘영혼’에 관한 최근의 철학적 논의들,” 『복음과 실천』 47:1 (2011), 55-80.
- 성종현, “인간의 본질과 죽음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장신논단』 44:1 (2012), 59-86.
- 송혜경, 『신약 외경 상권: 복음서』, 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09.
- _____, 『영지주의자들의 성서』, 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14.
- 양편승, “한국신종교의 생사관과 의례; 통일교의 생사관과 죽음의례,” 『신종교연구』 23 (2010), 91-114.
- 이동규, “고대 이집트인의 사후 세계와 영혼 이해,” 『중앙사론』 31 (2010), 197-227.
- 장영관,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학파의 영혼윤회설,” 『철학과 현상학』 26 (2005), 131-58.
- _____, “헬레니즘철학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혼 훈련 개념,” 『현대유럽철학연구』 29 (2012), 123-54.
- 전명수, “‘마음 · 몸 · 영혼’과 사회에 대한 뉴에이지적 접근,”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0 (2011), 103-36.
- 조재형, “그레코-로만 배경에서 영지주의 연구(13)－〈사도 바울의 기도〉,” 『성서마당』 136 (2020), 92-103.

- _____,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부
천: 부크크, 2018.
- _____,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개
정증보판, 서울: 감은사, 2021.
- _____, “그리스 종교와 철학으로 살펴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 대전: 한국
신약학회 제111차 정기학술대회, 2020.10.30., 133-35.
- _____,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 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
Canon&Culture 15:1 (2021), 219-47.
- _____, “알몸으로 빠져나간 청년과 영혼의 여행 (막 14:51-52),” 『신학사상』
172 (2016), 7-39.
- _____,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서울: 동연, 2020.
-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Bevir, Mark, *The Logic of the History of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Bovon, F., “The Soul’s Comeback: Immortality and Resurrection in Early
Christianity,” *Harvard Theological Review* 103:4 (2010), 387-406.
- Broek, Roelof van den, “The Authentikos Logos: A New Document of
Christian Platonism,” *Vigiliae Christianae* 33:3 (1979), 260-86.
- Brown, Raymond R., “The Passion According to John: Chapters 18 and 19,”
Worship 49:3 (1975), 126-134.
- Burkert, Walter, *Greek Religion*, Translated by John Raff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Christian, David, *Maps of Time: An Introduction to Big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Cullmann, Oscar, “靈魂不滅인가 죽은者の復活인가,” 『靈魂不滅과 죽은
者の復活』, 전경련 번역,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9.
- Dodds, E. R., *The Greeks and the Irrational*, Boston: Beacon, 1957.
- Dunderberg, Ismo, “Moral Progress in Early Christian Stories of the Soul,”
New Testament Studies 59:2 (2013), 247-67.

- Eliade, Mircea, 『세계종교사상사 1: 석기시대에서부터 엘레우시스의 비의까지』, 이용주 역, 서울: 이학사, 2014.
- _____, 『세계종교사상사 2: 고타마 붓다에서부터 기독교의 승리까지』, 최종성·김재현 역, 서울: 이학사, 2014.
- Harari, Yuval Noah. 『사피엔스』, 조현욱 역, 서울: 김영사, 2016.
- Hesiodos, 『신들의 계보』,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 Jonas, Hans. *The Gnostic Religion: the Message of the Alien God &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Third edition, Boston: Beacon Press, 2001.
- Lanzillotta, Lautaro Roig, “A Way of Salvation: Becoming Like God in Nag Hammadi,” *Numen* 60:1 (2013), 71-102.
- Layton, Bentley, ed., *The Gnostic Scriptures: Ancient Wisdom for the New Age*, New York: Doubleday, 1987.
- Lovejoy, Arthur O.,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8.
- MacDonald, Dennis R. *The Gospels and Homer: Imitations of Greek Epic in Mark and Luke-Acts*, The New Testament and Greek Literature Vol. I,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5.
- _____, *Christianizing Homer: The Odyssey, Plato, and the Acts of Andre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Does the New Testament Imitate Homer?: Four Cases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he Homeric Epics and the Gospel of Mark*,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ed., *Mimesis and Intertextuality in Antiquity and Christianity*,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1.
- Magill, Frank N., ed., *Dictionary of World Biography: The Ancient World, Vol. 1*, Chicago: Fitzroy Dearborn, 1998.
- Meyer, Marvin, ed., *The Nag Hammadi Scriptures*, New York:

HaperCollins, 2007.

Newton, Michael, 『영혼들의 여행』, 김도희·김지원 역, 서울: 나무생각, 2018.

Painchaud, Louis and Michael Kaler, "From the Prayer of the Apostle Paul to the Three Steles of Seth: Codices I, Xi, and Vii from Nag Hammadi Viewed as a Collection," *Vigiliae Christianae* 61:4 (2007), 445-69.

Patterson, Stephen J., "Jesus Meets Plato: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Thomas and Middle Platonism*," In *Thomasevangelium: Entstehung, Rezeption, Theologi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8, 181-205.

Pearson, Birger A., *Ancient Gnosticism: Traditions and Liter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_____, "Gnosticism as Platon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Marsanes (NHC 10,1)," *Harvard Theological Review* 77:1 (1984), 55-72.

Plato, "Phaedo," Translated by Hugh Tredennick,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Edited by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40-98.

_____, "Republic," Translated by Paul Shorey,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Edited by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575-844.

Reis, David M., "The Journey of the Soul: Its Expressions in Early Christianity,"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1999.

Riley, Gregory J., 『하느님의 강-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류를 찾아서』, 박원일 역, 21세기 기독교 총서, 김준우 편,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_____, *One Jesus Many Christs: How Jesus Inspired Not One True Christianity but Many*, Minneapolis: Fortress, 1997.

_____, *Resurrection Reconsidered: Thomas and John in Controvers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5.

_____, *The River of God: A New History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HarperCollins, 2001.

Robinson, James M., ed., *The Nag Hammadi Library*, New York: HarperCollins, 1990.

Rohde, Erwin, *Psyche: the Cult of Souls and Belief in Immortality Among the Greeks*, Translated by W. B. Hillis, London: Kegan Paul, 1925.

Scopello, Madeleine, 『영지주의자들』, 이수민 역, 칠곡: 분도, 2005.

_____, “Exegesis on the Soul,” In *The Nag Hammadi Scriptures*, Edited by Marvin Meyer, New York: HarperCollins, 2007, 223-26.

Tervahauta, Ulla, *A Story of the Soul's Journey in the Nag Hammadi Library: A Study of Authentikos Logos (NHC vi, 3)*, Novum Testamentum Et Orbis Antiquus 10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Turner, John D., “Sethian Gnostic Adaptations of Plato's Timaeus,” *ARC* 33 (2005), 52-73.

<초록>

오르페우스교와 플라톤 사상으로 살펴본 나그함마디 문서의 영혼의 여행

조재형
(케이씨대학교)

이 논문은 나그함마디 문서에서 영혼의 여행이 영지주의 그리스도교의 신학에 끼친 영향을 사상사 비평법과 종교사적 비교연구로 고찰하는 것이다. 필자는 먼저 어윈 로테의 『영혼』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인이 가졌던 영혼과 불멸 사상의 관계를 논한다. 특히, 로테에 의하면, 영혼제외는 영혼불멸과 영혼의 미래 삶에 대한 뿌리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영혼불멸 사상은 디오니소스 제의와 오르페우스교를 거치면서 더욱 확고해진다. 소크라테스도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을 받았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에다 오르페우스교의 전통을 보다 체계화해서 그의 영혼론을 확립하게 된다. 그는 인간의 탄생이 영혼의 하강과 함께 시작되고, 인간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환생을 위한 영혼의 여행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영혼의 윤회를 멈추게 하는 존재의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나그함마디 문서에서 모나드(하느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며 이 모나드로부터 인간의 영혼도 방출된다. 모나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인간이라는 개체 존재와 함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혼은 신(god)보다도 종교사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완전하고 선한 모나드(하느님)는 인간 영혼을 방출하여 이 세상에 보내고, 또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 심판함으로써 공의를 세운다. 나그함마디 문서의 대표적인

문서인 『요한 비밀서』, 『도마복음』, 『도마행전』, 『영혼에 관한 주석』, 『이집트인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여행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나그함마디 문서는 모나드의 선재성과 불멸성을 기반으로 인간 영혼이 모나드로부터 나와서 다시 모나드로 돌아가는 영혼의 여행을 잘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본디 의미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상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Journey of the Soul from the Perspective of Orphism and Platonism in the Nag Hammadi Library

Jae Hyung Cho
(Korea Christian University)

By using history of ideas and the method of comparative religion, this paper studies the influence of the journey of the soul on the theology of Gnostic Christianity in the Nag Hammadi Library. I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l and the notion of immortality of the ancient Greeks, centering on Irwin Rhode's *Soul*. In particular, according to Rohde, the ritual of the soul provides a root for the immortality of the soul and the future life of the soul. The concrete idea of the immortality of the soul becomes more clearer through Orphism and Platonism. The monad (God) in the Nag Hammadi library is an invisible entity, but it is the source of all things, from which the human soul is also released. Like the monad, because this invisible soul becomes an individual human being, it receives more attention than that of the god in the history of religion. The perfect and good monad establishes justice by releasing human souls to this world, and by calling them back to be judged. This soul's journey is demonstrated in *The Apocryphon of John*, *The Prayer of Apostle Paul*, *the Gospel of Thomas*, *Acts of Thomas*, *The Exegesis on the Soul*, *Authoritative Teaching*, and *The Gospel of the Egyptians* in detail. Therefore, based on the pre-existence and immortality of the monad, they reveal that the human soul comes out of the monad and returns to it, which suggests that

humans become children of God in the original meaning, and ultimately the idea of becoming one with God.